

커피가 ‘레드오션’을 넘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

환경, 경제, 사회적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공정무역커피’

[INDEX]

- 1회 지금 왜 공정무역인가
 - 2회 커피 한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 3회 커피가 ‘레드오션’을 넘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
 - 4회 스페셜티 커피 분야에 공정무역 커피를 가져오다
 - 5회 성평등에 기여하는 공정무역 커피/차
 - 6회 대륙별 공정무역 커피/차 산지 비교
-



코로나19팬데믹으로 불확실성이 전 세계를 강타했다. 이런 시대에 소비자들은 신뢰할 만한 시스템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고품질 커피를 선택하고 싶어한다. 이번 회차에서는 공정무역이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방법 즉 '공정무역과 지속가능성 가치'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불확실성에 대한 확실한 대안, 공정무역

'그린스완(Green Swan)'은 최근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다. 말 그대로 녹색 백조라는 뜻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금융의 파괴적 위기를 뜻한다. 그린스완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발생하면 거대한 위기를 가져오는 불확실한 위험요인을 뜻하는 블랙스완(The black swan)에서 변형된 말이다. 지난 5월에는 코로나19도 생태계 변화와 관련이 있고 대규모 피해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마찬가지로 그린스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불확실성 문제는 전 지구를 강타하고 있다.

그린스완에 대한 대처로 세계 각국은 그린뉴딜을 택하는 추세다. 그린뉴딜(Green New Deal)이란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과제로 꼽히기도 한다. 세계인의 기호식품인 커피산업도 예외가 될 순 없다. 커피산업은 기록적으로 낮은 시장가격과 기후변화에 의한 토양 황폐화, 생산자 성별 불균형과 노령화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성 문제에 직면해 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고품질 커피의 지속적인 공급, 그린뉴딜 시대에 커피 산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다.

'커피는 농약을 먹고 자란다'... 공정무역 커피는?

1인당 커피 연간 소비량이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하는 국가에서 사람들은 커피가 어떻게 재배되는지 얼마나 알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커피 재배 과정에 대해 잘 모른다. 매일 최소 1잔의 커피를 마시지만 커피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커피에도 농약을 사용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자연적으로 원두를 생산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 생산지가 지속가능한 생산을 하지 못하고 황폐화된다면 수많은 국내 커피 관련 산업들 또한 도미노 피해를 입을 것이다. 커피 산업이 기후위기로 인해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공급망 '유지'가 아니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공정무역기구 인증 커피는 앞선 회차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주 엄격한 글로벌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을 준수한 윤리적 제품이다. 대부분의 공정무역 커피는 유기농 인증 커피이기도 하다. 환경 기준에 집중하자면 공정무역 인증 커피를 팔기 위해서 커피 농부들은 토양 및 수질 개선, 해충 관리, 유해 농약 사용 금지, 폐기물 처리, 온실가스 감축, 생물다양성 보호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추상적인 말을 나열하기보다 공정무역의 지속가능성 가치를 실제 생산지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한다.

베트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 수출국이다. 베트남의 일반적인 커피 농부들은 더 많은 커피를 팔기 위해 종종 화학 살충제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을 파괴한다. 그러나 공정무역 인증 커피는 환경에 유해한 농약 사용을 금지하고 농부들이 살충제 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한다.

베트남 최초의 공정무역 인증 조합인 Eakiet은 베트남 닥랏(Dak Lat) 지역의 해발 500m 고도에서 커피를 재배한다. 이 지역은 고급 커피와 로부스타 커피를 재배하는데 적합한 곳으로 유명하다. 일반 커피 농장들은 전반적으로 농약을 사용하지만, 이 조합에서는 교육을 통해 살충제와 제초제 사용을 중단했다. 커피나무에 생긴 병충해를 발견하면 조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 교육도 시행한다. 병충해가 발생하더라도 약을 치지 않고, 높은 수압을 이용해 제거 작업에 돌입한다. 커피 싹 이식 및 바이오 발효에 대한 지침은 투자 대비 수익을 증대시키기도 했다.

국제공정무역기구 시스템 내에 '기후위기 공동대응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것은 지속가능성 그 자체다.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기후변화에 상당히 취약하다. 최근 수십 년간 폭염, 가뭄, 홍수, 열대 저기압 등 기상이변의 빈도가 증가하고 정도가 심각해지면서 해충 및 질병이 발생하고, 생산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은 곧 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다 뜻이다. 소규모 생산자들은 특히나 기후변화에 취약하고 대응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후변화에 취약한 소규모 생산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정무역기구 산하의 아시아-태평양 공정무역 생산자 사무소(NAPP, Network of Asia & Pacific Producers)는 '기후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소규모 생산자 조합의 기후회복력(Climatic Resilience) 증진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현재 1단계가 완성 중에 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라오스의 12개 생산자 조합을 관찰하며 기상센터는 농장에서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상 위험을 감지한다.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자 조합에게 정확한 관개 방법과 농자재 사용법을 안내한다. 또한 아시아-태평양 공정무역 생산자 사무소는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든 농장의 필수적인 데이터를 관찰할 수 있다. 결과적



엔제리너스-국제공정무역기구 감사패 전달식 (사진제공=엔제리너스)



한국맥널티-국제공정무역기구 MOU(사진제공=한국맥널티)

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후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진 것이다.

유기농과 공정무역의 시너지

공정무역 인증 커피 농가 중 5곳 이상은 유기농 인증 농가이다. 그러므로 공정무역 인증 커피와 유기농 인증 커피 사이에는 교집합이 존재한다. 둘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가지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무엇일까? 유기농법으로 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배환경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다. 물론 농업 자체가 환경에 대한 인간의 개입을 의미하지만, 최대한 인공적인 개입이 없도록 화학살충제, 유전자 변형 금지 등을 내세운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중시한다. 여기까지만 말해도 유기농법은 주로 환경적 기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유기농 인증 커피는 글로벌 환경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커피라는 뜻이다.

공정무역 인증 커피는 한 발 더 나아간다. 농사 폐기물 처리까지 해야 공정무역 인증 커피가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글로벌 사회적 기준, 경제적 기준까지 충족시킨다. 커피 농민이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유기농 인증 커피 농장에서는 그 농민에게 보호 장비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또한 그 농민이 하루에 얼마나 오래 일하는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들의 생계에 필요한 최저임금을 지불할 필요도 없다. 반면에 공정무역 인증 커피 농장에서는 위험한 작업을 할 때 농민에게 적절한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하며, 농민들은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16시간 교대 근무, 강제노동 등도 금지된다. 가장 중요한 점은 15세 이하 아동 노동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이라 하더라도 나이에 적절한 일인지, 학교 가는 시간에 하지는 않는지 등 엄격한 조건 하에 이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유기농 인증 커피가 더 열등하다거나 공정무역 인증 커피가 더 우수하다는 이분법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유기농 인증 마크와 공정무역 인증 마크가 함께 붙을

때 시너지가 가장 크다고 말한다.

그린뉴딜의 정책의 대표 주자는 공정무역 인증 상품

소비자 입장에서 공정무역 인증 커피를 선택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시스템 내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고품질 커피를 선택하는 것이다. 더불어 커피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후위기 등 외부 변화로 인한 변동성을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셈이다. 이미 국내의 크고 작은 커피 관련 유통업체, 제조업체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 최초로 공정무역 인증 커피를 출시한 엔제리너스는 이미 작년에 국제공정무역기구 생산자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또한, 국내 대표 커피업체인 한국맥널티는 작년 말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와 MOU를 체결하고, 공정무역 커피 제품 인증을 완료하여 오는 8월 첫 CVS 출시를 앞두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커피업체, 사회적기업 등 커피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공정무역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무역은 불확실성이 만연한 산업에서 훌륭한 대안이 된다.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의 지속가능성 가치는 공정무역의 기본가치이기 때문이다. 커피산업이 레드오션이라는 말에는 대부분이 동의할 것이다. 레드오션 커피산업에서 차별성을 꾀하려는 시도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감히 단언컨대, 글로벌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공정무역 인증 커피는 그린뉴딜 시대의 대표 상품이 될 것이다. *Coffee&Tea*



김민지

現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대리